

“복음의 재정립”

사도행전 15:1-11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교회로부터 파송되어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였을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1차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이 부흥의 불길을 순식간에 사그라뜨릴 수 있는 사탄의 방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된 자라고 하며 설령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행 15:1-2)

당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거의 모두가 이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동시에 예수를 믿는 일이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통해 깨달은 것은, 비록 그들이 할례 받지 않고 또 율법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지방에도 유대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출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문제는 조금 심각해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8)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무언가 다른 율법적 행위가 요구되는 것인가. 이 문제는 결국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어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격렬하게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에서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과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행 15:5)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유대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

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임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롬 2:28-29)

바울은 육신에 행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죄로 물든 마음을 도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행 15:10)

‘종의 멍에’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여러 신앙적인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행위적인 노력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직원들은 사장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자신의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복종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장의 자녀들은 아빠의 말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은 아빠의 자녀이기에 혹 자신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종으로서의 순종, 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믿음으로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당시 기독교가 이러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종의 순종’으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자녀의 순종’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온 모세의 율법을 끝까지 붙드냐 아니면 그 기준을 내려놓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가느냐 라고 하는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일어나서 “참된 구원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첨가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족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이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라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행 15:7-11)

베드로는 우리의 생각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면서 무할레자였던 고넬료가 성령받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과연 우리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켰지만 그것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할례가 유익하고 모세의 율법이 중요하다고 해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더 중요한 증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베드로의 발언이 끝난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일을 간증했습니다.

“은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행 15:12)

그들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 깨달은 것은 비록 할례받지 않고 율법의 전통과 의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으며 성령의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행 15:16-18)

베드로나 바울 그리고 바나바는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구약의 아모스와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이 방금 전 발언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가 경험한 내용과 놀랍게 일치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근거는 바로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간증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성경적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두가지 일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행 15:19-20)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 받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포함한 율법적인 규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비록 신앙적 행위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이나 담배를 한다고 구원을 못받는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러한 것에서부터 멀리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이 끝나자 모두들 결론이 담긴 내용을 담은 편지를 유대와 실라를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행 15:28-29)

이 모든 결정은 사람의 의지로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 성령이 내린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결정하시는데로 따라가야 합니다.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지만, 결론은 성령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새롭게 정립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에 의거한 새로운 복음, 온전한 복음이 새롭게 정립되는 성광교회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 나눔의 시간

1. 누군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까요? 한 문장으로 명료하게 말해봅시다.
2.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밑줄 부분 참고) 당시 유대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3. 토론의 마무리를 야고보가 내립니다. 그가 내린 두가지 결론은 무엇이었고, 이 결론의 결정권자는 누구였습니까?
4. 오늘은 유대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해 새롭게 정립(생각)해 보게 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